

정읍 육계인들, 홍림 농장건립 반대 투쟁 돌입



(유)홍림의 (주)하림 직영농장 건설과 관련하여 (유)홍림과 육계인들 사이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홍림의 입장

(유)홍림에서는 지난 8월 16일 본회 육계분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라북도 정읍시에 대규모 단지의 친환경농장을 설립한다고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선진국형 국내 최고의 양계장을 설립하여 2~3개소는 16~17만수 가량의 육계를 시범운영하며, 나머지는 (주)하림에서 생산되는 종계(연간 100~120만수)를 육성할 수 있는 종계 육성농장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홍림의 양계장 신축 배경은 지금까지의 재래식 방법으로는 더 이상 국가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으며 비위생적이고 냄새나는 양계장을 친환경적이고 현대적 시설을 갖춘 양계장으로

변모시켜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당사만의 이익이 아닌 양계산업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유)홍림은 이미 신규농장 부지를 선정 신축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부 시설도 뉴질랜드의 한 시설업체로부터 발주를 해놓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정읍 농가들의 입장

이와 관련하여 정읍에서는 '홍림 대규모 농장 건립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150~200여 육계농가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 주민 600여명과 합심하여 대대적인 반대서명운동을 펼쳐 이미 정읍시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공사장 앞에서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양계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다는데 양계농가들

은 (유)홍림의 이번 대규모 신규농장 설립을 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것인가? 이에 본고는 정읍지역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읍의 김광삼 비상대책위원회 부회장은 (주)하림의 자회사로 (유)홍림을 규정하고 대규모 신규농가 신설에 대한 양계농가의 입장을 전했다.

첫째, 현재 육계분야는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농장건설로 인해 기존에 있던 영세 농가들이 도산하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

둘째, 평당 8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 설립되고 있다는데 농가 현 실정에 부적합하며 현재시설 농가에 직접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계열회사의 사업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종계육성사는 육계사와 별 차이가 없어 육계사로의 전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농가 생존권과 직결 될 수 있다. 하림이 수출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상주 도계장이 국내로 유통되는 도계장으로 변모한 사례를 보듯 농가들은 이를 우려한다.

넷째, 열악한 사육수수료 문제가 이번 대규모 농장설립으로 인해 기존 하림의 위탁사육농가들에게 더욱 불리한 정황에 놓이게 하여 사육수수료를 낮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다섯째, (유)홍림의 이번 신규시설로 다른 계열업체 또한 경쟁적으로 대규모 농장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과 전국의 3,500여 농가들 중 70~80%농가들이 신규 대규모 농장들로 인해 도태될 것이다.

기존의 하림농가들이 이번 대규모 농장설립으로 아무런 방비도 못하고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지경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으로의 확산 움직임

물론 정부는 양계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계열화 사업으로 인해 양계산업이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화사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주체가 바로 사육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육가들은 사육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원성을 높여만 가고 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농민인데 그것을 몰라준다는데 농가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정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줄길 요망하고 있다. 농림부에도 대규모 농장으로 인한 농가들의 실직사태 초래를 알림과 동시에 전북 도지사를 방문하여 홍림의 신규 대규모 농장 설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유)홍림에서 정부지원금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이번 신규 농장을 건립한다고 전하며 별도의 제제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은 하림의 자회사나 마찬가지로인 홍림이 농민법인으로 친환경계사 설립과 관련하여 저리로 자금을 받았다는데 불만을 표출했다. 아직까지 농가들의 외침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양계인들은 정읍지역의 국소적인 문제가 아님을 각각하고 전 양계인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관망하기 보단 파악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농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농가들은 원하고 있다. (취재 | 김영훈 기자)